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시편 90:1-12, 히브리서 13:1-8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90%의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

1.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 (1) 세상에 속지 말고, 지지 말며,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히13:1-5)
 - (2)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히13:5-6)
 2.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히13:8)
 - (1) 예수님은 과거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셨다.
 - (2)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 (3)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 (4) 지금 그 이름을 붙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 결론 : 이것을 증거로 붙잡도록, 성경과 현장의 모델을 각인시켜라. (히13:7)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전에, 정한 시간에 모였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저희도 저희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열린 마음에 주의 말씀을 던져 주셔서 우리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할 종에게 성령충만을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은 좌절을 넘어서서 패배의식과 절망 속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조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집을 마련할 힘이 없고, 아이를 낳아 키울 경제력과 자신감이 없으니까, 결혼도 힘들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셋집 한 칸을 마련하려 해도 몇 억 원이 필요하지 않나. 당장 취직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청년실업을 두고 어른들이 평가를 하기도 한다.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왜 없어?” 그러기도 한다. “배가 아직 덜 고파서 그렇지.” 그러기도 한다. 사실 보면 절대빈곤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상대빈곤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일리있는 말들이다. 눈높이를 낮추면 되는데 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시대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장로님들 시대에는, 대학 때 학점 관리 잘 안 해도 기업체에 다 들어갈 수 있었다. 고도성장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에 불황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더니 지금 한국과 전 세계가 야단이다. 일본이 엔화를 평가절하해서 재미를 좀 봤는데, 그것도 우리에게서는 어려움이 있다.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너무 없는 시대다. 성적은 당연히 좋아야 하지만, 무슨 스펙을 쌓고 또 쌓아야 한다. 백 군데에 원서를 냈는데도 한 군데 취업되기도 힘들다고 한다. 그러니까 중고생 때는 고사하고, 요즘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강적들’이라는 프로 그래프를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재벌 2, 3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따로 있다고 한다. 거기에서부터 인맥을 쌓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거의 90%의 사람들은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삶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한다. 경쟁 속에서 많이 피곤하고 지쳤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오늘 얻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꼭 한 가지는 가지고 가시기 바란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가야 이 험악하고 악한 시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자. 그럴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믿음의 용기를 가질 첫 번째 이유 :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첫 번째 이유다.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무엇인가?

(1)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삶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히13:1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한다. 특히 갠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한다. 그냥 단순한 죄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난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응답으로 누리라는 것이다. 히13:4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행하고 간음하는데, 그런 음란에 속지 말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다. 히13:5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고도 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히 13:1-5의 내용은,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다. 세상이 핍박한다 해서 속지 마라. 세상이 음란하다 해서 따라가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가는 것이다. 가치와 의미를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2)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다. 히13:5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램넛들은 꼭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요14:16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요16:13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다. 행1:8은 말씀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특히 본문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언약기진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사람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요10:28-29에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싸이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속에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요16:33은 말씀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래 전이다. 거의 30년 전이다. 강화도 마니산 밑에 마니초등학교를 빌려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다. 밤에 담력훈련을 하려고, 1km 떨어진 산 위에 내가 미리 올라가 있고,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을 세웠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상을 퍼 놓고 성경구절을 적어놓았다. 그것을 베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벌써 아이들이 울면서 올라오는 게 보였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그때 회장이었는데, 달달 떨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

와 함께 하신다' 하더라. (웃음) 수고했다고 안이주었더니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웃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끝났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2. 믿음의 용기를 가질 두 번째 이유 :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두 번째 이유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너무 변화무쌍하다. 말 한 마디에 상처받아서 금방 확 변한다. 어떤 사람은 악수 한 번 안 했다고 토라져서 교회를 안 온다. 그래서 내가 바꿨다. '이래 가지고는 제자는 한 명도 안 나오겠다.' 지금은 제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래고 어르는 것으로는 제자가 안 나오겠다 싶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정한 기초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람은 늘 변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 적어도 중직자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심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내 신앙의 고향, 마음의 고향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 대대손손 주님을 함께 섬기면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거지인가,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또 기웃거리며 얻어먹을 것을 찾다니면 되겠는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1)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제도 역사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시다. 창조 때 역사하셨고 창조 이후에 계속 역사해 오셨다. 요8:56에는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다. 성육신 이전에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셨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셨다. 요13:1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다. 요17:11-12에는,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2) 예수님은 또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막16:19-20에는,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또다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다. 요14:26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다. 그분이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또다시 오순절 날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는 똑같이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나게 된다. 히11장의 위인들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롬16장은 그것을 누렸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행2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번 주간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3)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언제까지인가? 세계복음화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28:20은 말씀한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계22:20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그때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롬16:25-27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고 했다.

(4)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오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우리에게서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지금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

면 공간도 초월하는 역사, 시간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골1:20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시간간을 초월하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이것을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후대 램넛들이 이것을 증거로 보고 각인시켜야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재앙, 지옥, 사단의 손에서 건져 내셨는데, 이것을 재앙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증거를 붙잡고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론이다. 히11장의 인물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도록 해 주어야 한다. 히12:1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보고 증거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7절의 말씀대로, 성경과 현장 속에서 전도자들의 삶과 열매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란다. 이번에 세계램넛대회에서 선포된 말씀들은, 또 일곱 명의 증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설명한 것이었다. 그들을 모델로 세운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 그들에게 변함없으셨던 하나님은 너희와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이 램넛들과 약속하셨고 이행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신다.' 나를 넘어서는 25시와 영원한 단계까지 가도록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은 것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직장 못 간 학생들에게, 나는 3개월만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했다. "주여,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내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았다. 나도 그렇게 인도받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안 보이니까 목사님 보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왔다면, 나 때문에 당신은 떠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대로 떠나셨다. 나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변화무쌍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되, 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이 이유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당신의 지혜를 넘어선 지혜,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참 성공자들의 모습과, 복음운동의 역사를 보고 증거를 붙잡게 되기를 바란다. 역사적인 증거를 붙잡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 속의 전도자, 참 성공자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에도 나타나시도록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축복을, 이번 주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전능자이시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살리신 사랑의 주님이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후원해 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도 요셉처럼 담대히 헤치고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한 것처럼, 주의 뜻이 우리 참사랑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